

- 고령자 세대는 안전성을 중시하여 예·적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회 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, 의료비 부담의 상승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니즈가 증가할 가능성
- 이러한 경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, 2002년 0.1조엔에 불과하던 변액연금 잔고는 2012년 19.0조엔으로, 2.7조엔에 불과하던 월지급식 펀드 순자산은 2011년 33.2조엔으로 지속적으로 증가

■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 세대주 가구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활용이 필요함.

- 가구당 저축 잔고는 세대주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함(〈그림 9〉 참조).
* 30세 미만 세대주 가구의 저축액은 274만엔에 불과하나 7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경우 2,406만엔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남.
- 한편 세대주가 고령자이면서 근로자인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은 월평균 약 24.8만 엔임에 비해 가처분소득은 약 30.5만 엔으로 나타나 소득이 지출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하지만 고령 세대주 가구의 약 80%를 차지하는 무직 세대의 경우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6.6만 엔임에 비해 소비지출이 약 20.4만 엔으로 나타나, 3.8만엔 정도의 소득 부족분이 발생(〈그림 10〉 참조)
- 이에 더해 이와 같은 고령·무직 세대의 약 90%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장래 사회보장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면 가처분소득 부족분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이용이 불가피